

梅湖別曲의 自然背景攷

金 基 卓

〈차례〉

- | | |
|-------------|--------------|
| 1. 序論 | 3. 梅湖十里江山斗自然 |
| 2. 隱遁生活과 作品 | 4. 結論 |

1. 序論

文學作品創作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作家가 생활하였던 지역, 혹은 위치의 자연적 여건 내지 인위적 여건은 그것이 作品이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孟子>에 “居移氣 養移體”¹⁾라 한 것은 바로 환경적 여건이 人生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특히 山水自然을 배경, 소재로 하여 시조, 가사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던 조선조 시대에 있어서 作品生成 地域의 자연적 여건이 작품에 미쳤던 영향은 그 구체적인 예를 여러 시가작품에서 찾을 수 있었다. 不憂軒의 「賞春曲」, 倦仰亭의 「倦仰亭歌」, 松江의 「星山別曲」, 「關東別曲」, 頤齋의 「梅湖別曲」, 蘆溪의 「蘆溪歌」 등도 기행이나 鄉里에 내려와서 自然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작품이다.

또 하나는 위 作品마다 樓亭을 소재로 하여 이를 감싸고 있는 山水自然을 소개하고 있어 樓亭詩歌²⁾라 할 수 있다. 樓亭詩歌도 山水自然 속에

1) 孟子, 盡心, 上篇 인용.

2) 拙稿, 「雪潭 蔡德沂의 樓亭詩歌研究」, 尚州產業大學 부설 尚州文化研究所 刊「尚州

있는 누정을 詩歌의 배경이나 소재로 생각할 때 작가가 인식의 주체로서 누정이 있는 지역의 自然景觀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朝鮮朝 詩歌, 특히 歌辭作品의 대부분이 山水自然의 紋景을 소재로 한 내용의 詩歌文學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시가문학의 소재와 내용이 된 자연은 곧 그 지역의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유람처 내지는 은거지로 삼아 시를 짓고 노래를 하였던 것이다. 대체로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老年期에 벼슬에서 은퇴하면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휴식처로 삼고자 臺를 만들거나 亭字를 지어 유유자적하면서 終老한 것을 생각하였다 것이다. 趙潤濟 박사도 自然에 대하여 말하기를 自然과의 맹렬한 투쟁보다는 도리어,

「自然에 親近하고 自然을 즐길 수 있었다……自然을 깊이 이해하고 自然의 美를 謳歌하였을 뿐 아니라 自然에 파고 들어가 自然과 더불어 相浮相沈하였다.」³⁾

라고 말한 바 있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頤齋 曹友仁의 가사 작품 중 「梅湖別曲」은 경북 상주 매호리에서 창작된 것으로 관념적인 세계에서 허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自己 自身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체험의 기록이요, 實景의 묘사로 이루어진 山水紋景歌辭다. 〈梅湖別曲〉이 이루어진 尚州 梅湖는 頤齋의 고향이요, 隱樓地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그가 處했던 “梅湖十里江山”的 자연적 특성이 그대로 용해되어 있는 것은 볼 수 있다.

『文化研究』 제1호, 1991, pp. 152–156 참조.

3) 趙潤濟: 「口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62, pp. 248–249.

2. 隱遁生活과 作品

1) 隱遁生活

먼저 頤齋의 隱遁生活과 作品이 창작되었는 환경과 배경을 개관해 보기로 하자.

頤齋는 詩·書·画을 잘하여 三絕이라 했을 정도로 뛰어난 才能과 忠君憂國에의 선비정신을 지닌 儒學者였다. 그는 柳成龍의 門人으로 東人系의 南人에 속했으나 당쟁에 휘말린 기록은 없고, 다만 大北派에 의해 정권이 장악된 光海君 시대에 요직의 벼슬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이상과 경륜을 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평생동안 높은 벼슬은 갖지 못하고, 한때 詩禍를 당한 불우한 文人이었다.

澤堂 李植(1584~1647)이 지은 墓碣銘에 의하면 曹友人은 1561년(조선 명종 16년)에 경상도 醴泉郡 蘆浦里에서 父 曹夢臣(1532~1594)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頤齋의 名은 友仁, 字는 汝益, 號를 頤齋 또는 怡齋·梅湖·峴南이라 했으며, 본관은 昌寧이다. 歌客 芦溪 朴仁老(1561~1642)와 同年生이며, 松江 鄭澈(1536~1593)보다는 25년 아래이고, 岐峯 白光弘(1252~1556)死後 5년 이후에 났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 자랐으나 아주 영특하여 4歳時 能賦詩하였으니 「雲囚碧山首 烟割暮江腰」를 지었다 한다.

宣祖 21年(1558) 公의 年 27歲時 비로소 進士가 되었고, 同王 38年 廷試에 應해 뽑힌 바 되어 承文院에 들어가 博士가 되어 成均館典籍이 되었으며, 司憲府監察刑曹正郎을 거쳐 光海가 登位된 뒤 鄭仁弘이 擅權하자 그 무리를 채찍질하는 「大開川說」을 썼고, 光海君 5年(1612) 永昌大君의 獄死가 있자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兄弟岩」이란 詩를 지어 光海의 잘못을 隱喻하여 奸臣輩들의 미움을 사서 光海君 8年 丙辰(1616)에 鏡城

判官이라는 外職을 받아 귀양살이나 다름 없는 要塞地로 赴任하여 鏡城 改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光海君 13年에 製述官이 되어 京城에 있었으나, 당시는 大北派의 鄭仁弘, 李爾瞻 무리의 專橫이 극에 이르러 社會는 문란하였다. 이에 頤齋는 나라를 바로 잡기에 큰 뜻을 품고 忠義를 발휘하여 「直分司所見」, 「題分司承旨廳壁」을 지었으니, 이는 모두 故宮이 荒寂幽閉함을 보고 감회를 읊은 것이나, 李爾瞻 무리 同直 白大衍·辛義立 等의 所誣로 光海의 진노를 사서 獄에 갇혔다. 이후 삼년만에 仁祖反正이 있자 즉시 석방되어 右副承旨에 除援되었으나, 3년이란 세월동안 獄에 시달린 그는 官職이 싫어져 모든 것을 뿐리치고, 앞에는 洛東江이 흐르고 뒤에는 梅岳이 높이 솟은 尙州 梅湖로 돌아가 政界와는 장벽을 쌓고 손수 臨湖亭을 짓고 한가한 歲月을 보냈다. 그는 黨爭의 渦中과 奸輩들의 行悖, 이런 파란 많던 옛 宦路를 더듬고, 자기가 노닐던 옛 풍류를 생각하며 詩酒와 벗하여 時時 掩卷하며 지내다가, 仁祖 3年 乙丑(1625) 5月 3일에 卒하니, 享年 65세이었다.

文集으로는 頤齋集 2卷이 現存한다. 頤齋는 寒岡 鄭述(1543~1620), 月川 趙穆(1524~1606)에게 受學하였으며, 澤堂 李植(1584~1647), 愚伏 鄭經世(1563~1633), 月潤 李塽(1558~1648), 蒼石 李塽(1560~1635) 弟兄와, 芝峯 李暉光(1513~1628), 旅軒 張顯光(1554~1637) 黔澗趙靖(1555~1636) 等과 交友하였으며, 특히 澤堂과는 年齒의 차이는 있으나 교분이 두터워 澤堂이 頤齋集의 校正을 보았고 墓碣銘을 썼다. 이들友人們은 당대 性理學에 자못 研理가 깊어 「蠶測錄」을 오늘에 전하고 있다.

또 頤齋는 성품이 곧고 泉石을 사랑하여 國內의 名山水를 두루 다녔고, 筆法은 眞草衆體가 모두 뛰어났으며, 繪畫도 뛰어나게 잘하여 筆法·文章·樂律로 당시 三絕이라고 하였다.

〈梅湖別曲〉外 顧齋의 가사작품으로는 광해군 8년(1616)때 大北派에 밀려 함경도 경성 판관으로 있을 때 지었다고 추정되는 〈出塞曲〉, 關東地方에 기행하면서 관동의 情景과 금강산의 佳景을 두루 다니며 宦路時 조정의 간신배들을 꾸짖고 임금을 그리며 風流樂道하던 일을 읊은 〈關東續別曲〉, 광해군때 詩禍를 당하여 3년간 嶽苦를 치루면서 조정의 간신 무리에 대한 분노와 임금에 대한 忠君憂國之誠을 발휘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지은 美人曲系의 가사 〈自悼詞〉가 전하고 있다. 끝으로 만년에 梅湖의 隱樓地에서 지은 〈梅湖別曲〉은 顧齋가 61세때 당시 仁穆大妣가 유폐되어 있는 西官의 황폐함을 보고 지은 詩 때문에 詩禍를 만나 광해군에게 親鞠을 당하고 3년간 嶽苦를 치르다가 仁祖反政이 일어나 석방되었을 때 그는 곧 모든 벼슬을 포기하고 尙州 梅湖里에 落鄉해서 山水自然을 보고 지은 紋景歌辭이다.

顧齋가 老年에 梅湖로 落鄉하게 된 동기와 사망 원인을 광해군의 親鞠 때 받은 가혹한 형벌과 3년간의 嶽살이로 얻은 病때문이라고 澤堂 李植은 墓碣銘에서 밝히고 있다. 顧齋는 學者라기보다는 先祖부터 藝能에 조예가 있어서 詩·書·畫에 능한 예술가이다.⁴⁾ 顧齋는 壬亂으로부터 光海暴政과 仁祖反正으로 이어지는 混亂과 激變의 시기에 생애를 보냈다. 이런 潟中에서 몇 번이나 개인적인 극한 상황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顧齋의 생애는 松江이나 孤山의 생애와 흡사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閑適한 가운데 退仕의 생활을 吟風弄月로 소일하던 士大夫들의 정신세계와 다른 대조적인 精神世界를 엿 볼 수 있다.

특히 孤山의 생애와 文學世界는 顧齋와 유사한 점이 많다. 周知하는대로 孤山은 朝鮮朝에서 가장 표본적인 선비정신의 소유자로서 일생을 거의 유배로 보내다시피 하였으나, 신념을 굽힌 적이 없고 官職과 가정적

4) 其爲文章 失口抒思而自中模核 筆法直草衆體咸備 得者實之 旁及繪事 足稱三絕其他 樂律雜技 能舉一超三昧。(顧齋集)

安逸에 戀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애 가운데 쓰여진 그의 詩歌는 一見江湖 風流客의 작품 같지만 실제로는 吟風弄月의 行間에 저항의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⁵⁾

頤齋는 평생 產業에 힘쓰지 않았고, 더우기 獄苦 뒤에는 가산이 더 기울어져 妻子가 飢寒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러나 介意하지 않고 다만 賞自然을 즐겨 젊어서부터 名山에 두루 유람하였으며, 晚年에는 尚州 梅湖里에 梅湖精舍를 지어 놓고 낚시로 즐거움을 삼았다.⁶⁾

頤齋의 試練은 黨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不遇의 탓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곧은 선비정신에 基因된 것이라 보아진다. 따라서 頤齋는 자신의 落鄉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본래 남에게 얹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일찍부터 山水 遊覽의 性癖이 있었다. 비록 中年에 宦途에 日沒하여 몸은 煙霞之勝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夢寐中에서도 往來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⁷⁾

「孔顏에게서 즐거움을 찾고 章食瓢飲이 나의 本分이며,……榮辱은 굳이 찾으려고도 피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내 본분에 마음이 편하여 스스로 만족하여 근심을 잊으니 어찌 반드시 조정의 높은 관작을 얻어 평생의 큰 포부를 폴고자 하겠는가?」⁸⁾

이는 조선조 사대부들이 공통적 성격인 泉石膏盲의 隱逸趣向으로 이해

5) 韓碩洙 : 曹友人の 歌辭研究, 상주농암전문대학 논문집 제20집, 1981, p. 200.

6) 平生不肖產業 獄食益子 妻子不免飢寒 而了不介意 惟好賞泉石 少時偏遊城內名山… …卜商山作梅湖精舍……漁釣以爲樂。(頤齋集)

7) 僕本不霸人也, 凤有山水遊觀之癖 雖有中年汨沒宦途 而象外煙霞之勝 未嘗不往來於夢寐中。(續關東別曲)

8) 尋所樂於孔顏 惟筆食與瓢飲是本分……倘來之榮辱 非苟免而妄求 隨素履之平但 足自適而妄憂 豈必峨冠於廊 展平生之鴻疇。(次歸去辭)

할 수 있으며 아울러 頤齋의 선비정신을 해아려 볼 수 있다.

頤齋가 晚年에 침거하였던 梅湖는 1633년 仁祖反正때 召命을 입었으나, 벼슬길을 버리고 商山 洛濱으로 隱退한 곳이다. 이에 仁祖는 先生에게 梅湖十里江山을 주고, 土地와 서적을 特賜하여 忠臣 頤齋先生를 위로하였던 것이다. 梅湖를 隱樓地로 정한 先生은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物我一體의 大自然에 남은 여생을 맡기었다. 頤齋가 晚年에 蟄居하였던 梅湖는 지금의 경상북도 尚州郡 沙伐面 梅湖里이며, 俗稱 東洞이라는 곳으로 洛東江邊에 위치한 風光이 수려한 마을이다. 東洞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雲成津은 漕運의 요지였다고 한다. 雲成津에서 東洞으로 五里許가 湾曲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쯤에 梅湖別曲에 나오는 臨湖臺가 돌출되어 있다. 이 臨湖臺에서 마주 보이는 十餘里許에 飛鳳山이 솟아 있고 마을 뒤가 梅岳山으로 梅湖里를 병풍처럼 둘러 싸고 있다.

頤齋는 이곳에서 불과 2년여의 여생을 보냈다. 그가 지은 가사 四篇 가운데 關東續別曲과 梅湖別曲은 이곳에서 창작되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東洞은 순수한 頤齋의 후손만이 聚落을 이룬 同族部落으로 사십여 호가 남짓하다. 宗宅은 세습되는 것이 따로 없고 祠堂은 보존되고 있다. 頽落한 祠堂 안에는 位牌 외에 遺稿가 木簡으로 새겨져 보관되어 있는데 아직 公刊된 바 없다. 그런데 지난 해(1991년)에 頤齋先生의 후손들이 옛 二適亭(梅湖精舍) 자리에 臨湖亭·御風臺의 머릿글자를 따서 臨御齋를 짓고 동구 앞으로 臨湖亭을 移建 重創했으며, 御風臺 옛터에는 標碑를 세워 頤齋先生이 옛날 유유자적하던 梅湖의 遺蹟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하지만 臨湖·御風의 두 亭臺 사이에 있었다던 푸러렸을 梅湖池는 江모래에 묻혀 배추밭으로 변하여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으니 “梅湖映湖形”이란 풍수설도 이제는 옛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2) 作品概略

頤齋의 歌辭作品은 조선조 전기 양반가사 작품 가운데서 時代的으로 蘆溪 朴仁老와 함께 마지막 위치에 속한다고 하겠다. 丁克仁에서 宋純, 白光弘, 鄭澈로 이어지는 兩班歌辭의 계보가 曹友仁과 朴仁老로 연결된다 는 主張⁹⁾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 鄭澈이 宋純에게 師事한 관계 이외에는 다른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사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으므로 이 系譜는 앞선 작가의 작품에서 주제나 형식면에서 영향을 받은 일련의 작가 계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頤齋의 歌辭는 松江을 模倣한 面이 많기는 하나, 그 模倣은 單純한 模倣이 아니라 松江의 歌辭를 充分히 吟味하고 完全히 消化하여 自己의 作品世界에 振然히 融合하여, 歌辭作家로서 그는 그대로의 一家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歌辭는 形式도 整齊하고 語彙(漢文句가 大部分이기는 하나)의 驅使도 自由로워서, 松江에는 못 미칠지 모르나……」¹⁰⁾

와 같이 頤齋歌辭는 松江歌辭의 模作이나 亞流가 아님을 알 수 있다. 松江과 頤齋는 거의 같은 시대에 사람이다. 그러나 연령적으로 보면 頤齋는 松江보다 25년 年下이고, 또 東人과 西人の 四色이 다르고 출신지역이 다르기 때문에¹¹⁾ 이들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본다. 더구나, 松江이 江華에서卒할 때 頤齋는 35才 나이로 文科에 급제하여 조정에 들어가기 10년 전이므로 이들의 친분은 극히 회박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頤齋는 文學史的으로 볼 때 松江 以前의 양반가사 계열과 그 類를 같아

9) 高敬植: 「關西別曲」과 「出關曲」, 국어국문학 36호, 국어국문학회 1967, p.51.

10) 金永萬: 曹友人의 歌辭, 「頤齋詠言」, 語文學 10호, 한국어문학회 1963, p.78.

11) 松江까지 4명의 가사 작가들은 모두 湖南人으로 丁克仁이 泰仁, 宋純이 潭陽, 白光弘이 長興, 鄭澈이 潭陽 昌平이어서 世稱 湖南歌壇을 이룬다. 曹友人과 朴仁老는 嶺南人으로 이들과 지역적으로 다르다.

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頤齋는 아래 인용과 같이 松江의 〈關東別曲〉을 얻어 보고 느낌을 말한 것을 볼 때, 美人曲系의 〈自悼詞〉와 기행가사系의 〈關東別曲〉에 있어서 주제와 유형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연히 鄭松江의 關東別曲을 얻어 보니 글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節秦(리듬)가 원숙했다. 縷縷한 數千 百言이 感憤激昂之懷를 곡진하게 묘사했으니 진실로 걸작이다. 반복하여 吟詠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靥艷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¹²⁾

頤齋의 〈梅湖別曲〉은 丁克仁의 〈賞春曲〉, 宋純의 〈俛仰亭歌〉, 鄭澈의 〈星山別曲〉에 이어지는 安貧樂道와 吟風詠月의 주제로 하였으며, 그 후同年輩인 朴仁老의 〈蘆溪歌〉, 許柵의 〈西湖別曲〉 등 모두 山水自然의 納景歌辭이다.

頤齋의 〈梅湖別曲〉을 창작한 시기는 앞에서 살펴 대로 仁祖反正 후 晚年 2~3年 동안이다. 그는 이 당시 이미 窗路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忘世하여 梅湖에서 悠悠自適한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다른 江湖歌辭처럼 몸은 自然에 있으나 뜻은 관직에 미련을 두고¹³⁾ 阿付的表現에 마음을 두지 않았음을 作品에서 볼 수 있다.

〈梅湖別曲〉은 총 1147字인데 두 절씩 안팎으로 짹지워서 모두 89귀글체(行)의 가사형식이다. 字數형식은 3·4조가 우세하며 다음으로 2·4조 형식이 많다. 이 作品은 총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序詞로서 落鄉동기를, ②梅湖精舍 經營 경위, ③, ④는 梅湖의 山景과 水景을 묘사하

12) 偶得鄭松江關東別曲者而觀之 非但詞致後逸 節秦圓亮而已 縷縷數千百言 寫盡感憤激昂之懷 真傑作也 反覆吟詠 益命人靑艷之無已也。(頤齋係「續關東曲序」)

13) 崔珍源: 「自然과 人間存在」, 韓國思想大系 I,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刊, 1973, pp.227~234.

고, [5]는 梅湖의 四時景과 梅湖의 山水美景 등으로 가사의 전반부를 서술하였다. 후반부에서는 [6] 梅湖에서 安貧樂道하는 생활과 隱遁의 所懷를, [7] 梅湖에서의 吟風詠月의 風流를 통한 逍遙景을 묘사하고, [8]의 結詞에서는 神仙의 醉樂 묘사로 作品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 作品을 보면 序詞에서 “明時예 뿐인 몸이 物外에 누어더니 / 갑 업순 風月과 임저 업순 江山을 / 造物이 許賜해 야 날을 맛겨 뿐리시니”와 結詞에서는 “두어라 이령성그려 終老호달 어이호리”로 구성됨을 볼 때 宦界의 미련을 두지 않고 江湖 즉, 商山洛濱인 梅湖에 隱居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序頭와 結詞의 표현과 시술구조는 조선조 양반가사에서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당시 士大夫들의 歸去來 志向性을 가늠할 수 있다.

頤齋는 당시 士大夫들과 같이 한 때 明哲保身의 귀거래가 아니고, 영원히 宮職을 버리고 山紫水明의 梅湖에 率居하여 「妻子不免飢寒 而了不介意」하면서 까지 오직 남은 여생을 山水自然에서 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梅湖十里江山 중에서도 梅湖精舍가 있는 梅湖는 그 景概가 한 폭의 山水畫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梅嶽山 자락에 위치한 마을 앞에는 洛江(洛東江)이 푸르게 흐르는데 마을 앞에 와서 竹院灘을 이루어 더욱 푸르게 감돌고, 對岸 멀리는 飛鳳山을 비롯한 크고 작은 山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頤齋는 마을 어귀의 御風臺와 마을 앞 竹院灘 절벽 위에 臨湖亭을 지어 亭·臺 위에서 바둑과 책을 읽고 臨湖亭 아래에서 釣水로 消日하며 여생을 詩와 술, 그리고 賞自然으로 65세에 終老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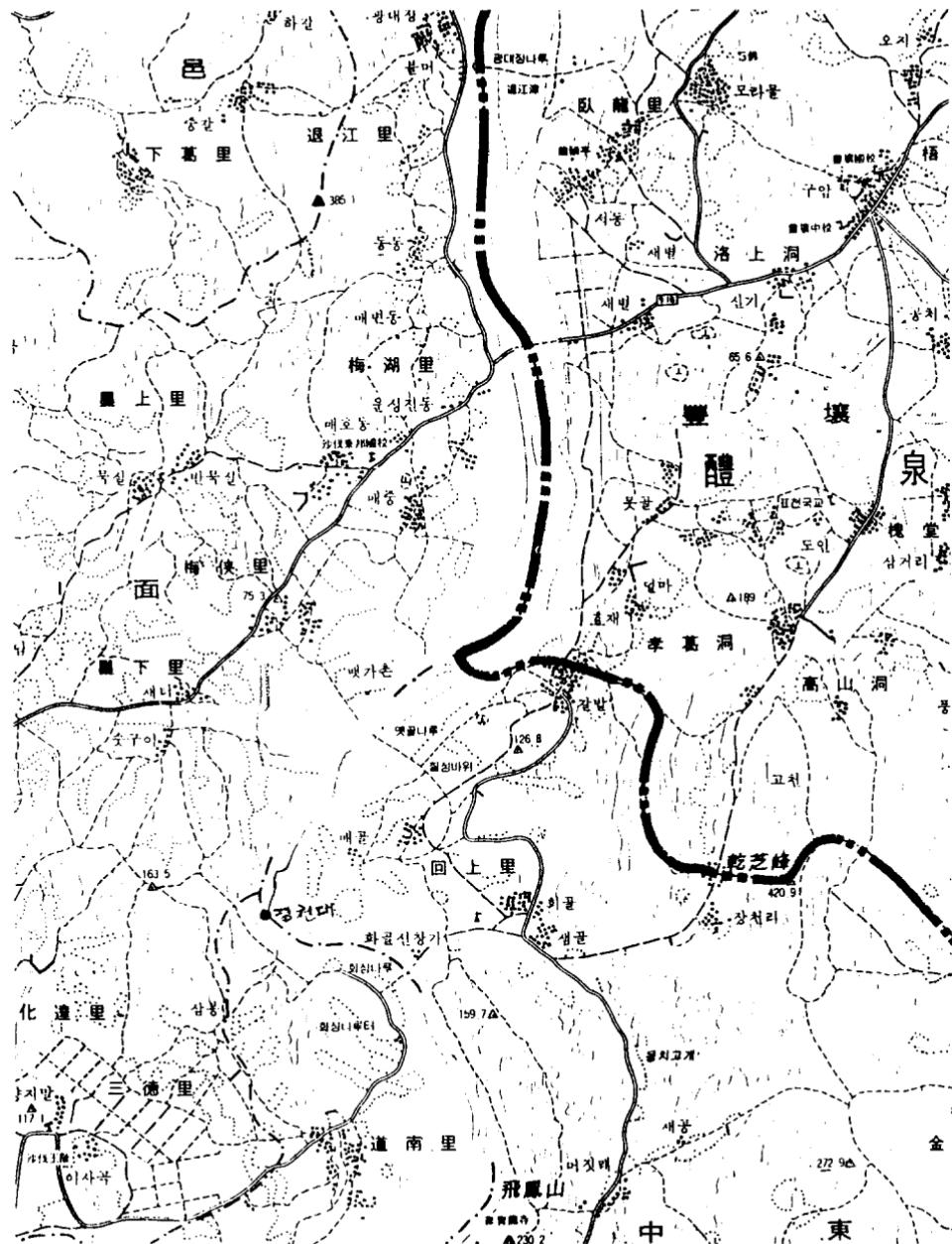
頤齋의一生을 요약한다면 尹孤山과 같이 政治的으로 劣勢에 있던 南人の 한 사람으로서 出仕한 기간은 얼마되지 않고, 임금에 대한 忠義를 제대로 바르게 펴지도 못하고, 궁벽한 곳에서 배치되어 謫居 아닌 謫居생활을 하고, 또 詩禡로 갖는 嶽苦를 당하는 생활이었다. 결국 仁祖反正以

後 王의 召命도 뿌리치고 山들이 둘러싸여 山勢·泉石이 수려하고 인적이 드문 商山洛濱 梅湖를 隱樓地로 삼았다. 그는 梅湖에서 여생을 보내고 자 率居하여 自然을 벗삼고 醉樂의 風流를 즐기는 安貧樂道의 생활이었는데 이와 같이 隱遁生活을 하게 된 것은 결국 詩禡로 인한 모진 고문과 犯獄살이 끝에 病을 얻게 되고, 또 지금까지의 是非榮辱에 환멸을 가져 와 으므로 忘世하고자 山水自然을 찾아 落鄉하게 되었으며, 그 상황은 그의 詩歌作品 4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조 사대부의 선비정신이 투철하게 나타나 있다.

본고에서 대상 삼고 있는 〈梅湖別曲〉은 顧齋의 마지막 가사 作品으로서 山水自然이 수려한 尙州·梅湖에서의 생활을 山水敍景과 함께 이 作品에 담아 불우했던 자신의 一生을 마무리 하는 達觀的 경지를 安貧樂道를 주제로 하여 그린 敍景歌辭이다.

3. 梅湖十里江山과 自然

顧齋의 〈梅湖別曲〉은 商山(尚州)洛濱(洛東江)에 있는 梅湖里를 中心으로 하여 작품 배경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作品의 배경은 洛江 梅湖十里江山을 중심하여 梅湖 洛東江, 退江, 擧天臺, 梅岳山, 二適亭(梅湖精舍), 臨湖亭, 御風臺, 道南 등 주변의 山水가 詩歌生活의 가장 중요한 공간적 무대가 되었다.



1) 梅 湖

“梅湖”는 경북 상주군 沙伐面 梅湖里를 말하는데 자연부락명으로 東洞, 梅湖, 雲城津洞이 있다.

尙州郡의 沙伐面은 원래 신라 초기에 한 부족국가로 沙梁, 伐, 沙弗沙伐로 형성되어 오다가 新羅 沾解王에게 정복되어 洲가 된 沙伐州의 東北方 일부를 말한다. 그 후 一說에 의하면 서기 919년(신라 景明王 3年)에 景明王의 5째 아들 沙伐大君(朴彥昌)이 후백제 甄萱의 침공으로 本國과의 교통이 두절되고 孤立無援하게 되었으므로 大君이 스스로 王이 되어 沙伐國을 세워 대항하다가 11년 후 930년(敬順王 3年)에 甄萱의 기습으로 패망하였다 하고, 당시 사벌국의 도읍지가 이곳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다.

沙伐은 군 소재지에서 동북방 9Km 지점에 동쪽으로 洛東江을 경계로 하여 상주 中東面과 예천군 풍양면이, 서쪽으로는 국도를 경계로 상주 외서면 공검면이, 남쪽으로는 屏城川을 경계로 상주시에, 북쪽으로는 함창읍과 문경군 영순면에 인접되어 위치하고 있다. 사벌면에는 행정구역으로 墨上, 墨下, 袂欣, 德可, 德潭, 杜陵, 梅俠, 梅湖, 木可, 三德, 嚴岩, 龍潭, 元興 退江, 化達里 등 15개 동리로 한 면을 이루고 있다. 沙伐面의 地勢는 대부분이 광활한 넓은 평野를 펼치고 있고, 洛東江에 沿하여 梅岳, 飛鳳山과 天柱峰, 覆雲峰 등이 연이어져 있어 梅湖, 擎天臺와 같은 名勝을 이루고 있어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특히 “梅湖”는 願齋의 은거지로 마을 뒤 梅岳山이 낙동강에臨하여 절경을 이룬 명승지로 梅湖精舍, 御風臺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梅花映湖形이라는 풍수설에 의하여 “梅湖”라는 마을 명칭이 되었다하며 옛날에는 마을 西南쪽에 梅湖池가 있어서 景觀이 더하였다고 한다. 지금 이곳에는 愚伏 鄭經世의 遺墟碑와 願齋 曹友仁의 祠堂이 전한다. 기록에 의하

면¹⁴⁾ “梅湖”는 山은 梅岳이고 江물은 湖水와 같이 넓고 깊다하여 梅湖라 한다고 전한다. 退江쪽으로부터 산쪽으로 쏠려 흘러 내리는 물줄기는 산을 파고 들면서 奇岩을 드러내고 絶壁을 만들고 스스로는 激流와 澄潭을 지으면서 滔滔히 흐른다. 낙동강 물 건너 沙場은 끝없이 넓고 깨끗한 물이 불으면 적어졌다가도 물이 줄어들면 본래대로 넓어진다. 오고 가는 白鷺가 아니면 沙場은 바로 寂寞 그것이다. 다행히 沙場 건너에 萬頃의 平野에는 豊饒가 있고 案山의 群巒이 雄壯하여 江과 沙場과 平野와 群巒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江中の 奇岩은 漁翁의 낚시터가 되고 기슭의 岩盤은 배를(舟) 대는 船艤이 되었다. 물살이 순하고 물목이 좁은 곳을 가려 나루를 만들어 길손이 오고 가고 절벽 위에는 亭子를 세워 騷人이 노난다. 江뚝을 沿하여 松竹과 楊柳 사이를 비집고 小路를 내어 漁夫가 왕래하고 層岩과 絶壁을 騞고 羊腸을 내어 유람하는 사람들이 繁雜하다. 이제는 車道가 開設되어 車馬의 왕래 또한 景勝을 世人이 함께 玩賞하게 되었다.

西厓 柳成龍은 이곳 梅湖亭의 절경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옛적에 내가 이곳을 지난 일이 있었더니, 정다운 벗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 亭과 臺는 대나무 속에 아름답고, 歲月은 흘러 便紙도 드물었다. 公事が 뜸하여 몸이 조금 계으르려는데, 名勝을 지나게 되니 興이 적지 않다. 이곳에서 익히 알리라, 建業(吳의 서울)의 물에 武昌(赤壁의附近)의 魚膾가 絶味인 것을.』

(夙昔淹吾駕 情朋邂逅餘 /亭臺憐竹樹 日月間音書 /簿領身方倦 經過興未疎 /懸知建業水 絶勝武昌魚)

14) 「尙州誌」, 上주시, 郡, 1989. 2, pp. 1417-1418.

2) 洛東江

〈매호별곡〉의 현실적 배경이 되는 尚州 洛東江과 洛東江에 臨한 梅湖, 그리고 낙동강의 勝景따라 이루어진 수많은 亭子들이 전해 오고 있다.

洛東江은 大江이다. 太白山 漢池에서 出源하여 溪川의 大小와 清濁을 모두 收容하여 길이 千六百里를 悠悠히 흘러 南海로 들어 간다. 이 곳 尚州는 그 中流로서 尚州의 舊號인 上洛의 동편이고 옛적 이곳 沙梁伐國의 都邑이었던 洛陽(上洛)의 동편에 와서야 강다운 강이 되므로 그 이름이 洛東江이다. 이처럼 낙동강은 그 이름이 尚州에서 유래되리만치 이곳의 江勢와 沿岸의 경관이 浩大하고 絶勝이다. 澤里志에도 洛東江을 말하는데.

『漢池는 天然的으로 된 뜻이다. 太白山의 主峯 아래에서 山을 뚫고 흘러나와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 禮安에 이르러서는 東쪽으로 꺾여지고 서쪽으로 安東의 남쪽을 돌아 龍宮 咸昌의 경계에 이르러 비로소 남쪽으로 꺾여서 洛東江이 된다. 洛東江이라 함은 尚州의 동쪽을 말한다. 江은 金海로 들어가는데 慶尚道의 중앙을 흘러간다. 江 동쪽을 左道라 하고 江 서쪽을 右道라고 한다. 두支流가 金海에서 크게 合流한다. 70州가 동일한 水口로써 큰 들판을 만든다. 上古에는 道內에 작은 나라가 대단히 많았는데 新羅時代에 이르러 이들 나라가 모두 통일되었다.』¹⁵⁾

라고 하였다.

尚州의 洛東江은 咸昌의 金谷과 沙伐의 退江으로 들어와서 洛東의 長

15) (漢池 天成之澤 太白山 上峯下 穿山而出 自北南下 至 禮安 東折而西 繞 安東之南 至 龍宮 咸昌界 始南折而 為洛東江 洛東者 謂 尚州之東也 江入于金海 劃居一道中央 江東 為左道, 江西 為右道 兩支 又大合於金海 七十州同一水口. 作大局 上古內有百里之國 甚多 至 新羅出而一之)(擇里志)

谷으로 흘러 나간다. 店村에서 頴江과 合流하고 咸昌에서 利安川을 모으고 沙伐에서 屏城川이 들어오고, 中東에서 渭江과 合하고 洛東에서 長川을 모아 흘러 간다. 醫泉, 聞慶, 尚州의 三郡이 合한 支點에서 들어와서 尚州, 義城, 善山 등 三郡이 合쳐진 곳으로 흘러 나가는 것도 기이한 것 中의 하나이다.

낙동강 中流에 위치하는 상주는 수많은 曲과 潭을 이루며, 河床의 기암괴석, 川邊의 기화요초, 강가의 기암절벽을 이룬 천혜의 절경은 상주의 사벌면에 운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梅湖十里江山”이란 말도 梅湖 위에 있는 退江에서부터 梅湖 아래 위치한 擊天臺를 지나 道南書院까지 낙동강의 絶勝을 두고 말한다. 따라서 이 사이에는 조선 조 사대부들이 歸鄉하여 선비 文人們끼리 詩的 交遊와 詩歌活動한 樓亭(亭字)들이 많다. 따라서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들은 고향에 돌아와 山水自然에 親和하고자 臺나 亭子를 세우고 벗들과 詩를 지어 화답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풍류를 누릴 때 이미 문학에 접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덕망이 있는 사대부가 소유한 누정일수록 이곳에는 누정제영과 詩歌 및 기문이 오랫동안 문현에 남겨 전해질 때, 당대의 문인교류와 문단적 기능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곧 누정문학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누정은 유흥상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누정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의 산수로 말미암아 붙여진 누정 이름이 많다는 것은 누정의 기능을 암시하는 증거다. 대체로 명승지를 유람하고자 누정에 오르고, 누정에 올라 山水美를 탐상하게 된은 곧 누정이 갖는 遊興賞景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누정에서의 自然山水美 발견은 곧 詩文으로 표현하게 된다. 특히 詩를 알고 학문하는 선비들이 벼슬에서 은퇴하거나 고향산천에 은거할 때 경치 좋은 臨水背山하는 곳에 누정을 짓고 이를 휴식처로

삼아 거기에서 유유자적하며 시를 읊고, 또 찾아 오는 이도 뜻이 통하는 선비였을 때 곧 詩友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누정에 모여서 유흥상경의 흥취가 시적 감흥을 일으켜서 그것을 詩로 표현하면 樓亭詩가 되고, 이 누정시의 작자가 많아져 시적 교유의 집단이 이루어질 때 소위 “누정시 단”¹⁶⁾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누정시단 형성 이전에는 이미 선비들이 詩會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학문을 강학하며 인륜의 도를 되새기면서 조용히 수용하고 지내는 곳이 바로 정자다.

필자가 조사한 경북 상주지역의 누정수가 301개나 된다. 이 중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하고 있는 누정엔 가면 대부분 그곳 풍광과 누정의 건립취지를 밝힌 누정기와 누정시가 혼판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상주는 유명한 낙동강이 문경, 함창을 거쳐서 낙동에 이르는데, 그 중의 절경은 퇴강리부터 매호리, 회상리, 도남리, 낙동리까지 운집해 있었다. 특히 회상리의 무우정을 중심한 경천대의 승경은 예전부터 단연 으뜸으로 여기고 있다. 퇴강리와 낙동리 사이의 전하는 정자만 해도 낙동강 상류의 매호리에 있는 曹友仁의 二適亭을 비롯하여, 開巖亭, 伴鷗亭, 梅湖亭, 楓湖, 簾巖, 招鶴臺, 竹巖, 樂志亭, 牛巖, 千仞臺, 舞雩亭, 自天臺, 合江亭, 觀瀾亭 등 무려 42개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곧 낙동강물이 흐르는 산수절경을 따라 누정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낙동강의 절경 때문이다.

이같이 낙동강의 勝景에 따라 건축된 누정뿐만 아니라, 이 누정에서 낙동강의 절경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詩(文)歌가 많이 나왔다. 낙동강의 한 곳에서만 지은 시문을 소개하면 佔畢齊 金宗直의 洛東謠, 觀水樓題詠을 지은 退溪 李滉, 灑纓 金駟孫, 李奎報, 그리고, 柳成龍의 梅湖亭詩, 曹友仁의 梅湖別曲, 金尙憲의 雪潭 新亭記와 和答詩 雪潭十詠, 李植의

16) 장덕순: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I, 서울: 시인사, 1987. pp. 22.

舞雩亭記, 蔡得沂 雲潭十詠과 天臺別曲, 柳疇睦의 自天臺記, 柳尋春의 觀水樓詩, 千仞臺, 金 覺의 合江亭詩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같이 상주의 누정도 다른 지역의 누정과 마찬가지로 당대 詩人墨客들이 모여 詩情을 나누는 가운데 洛江 시단 형성¹⁷⁾의 계기가 되기도 하여 누정은 사대부 문인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상주의 매호십리강산은 洛江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 詩文활동이 왕성한 인문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룬 곳이기에 낙동강 중에서도 洛東江의 絶勝은 바로 이곳을 두고 말한다. 사실 근세에 와서 조선총독부의 통계에서도¹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낙동강의 本·支流가 경상도의 대동맥이 되어 흘러 내리는 만큼, 그 유역의 수십 郡縣에서 배출시킨 역사상의 두드러진 인물만 해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¹⁹⁾ 영남을 貫流하는 낙동강은 인재 배출과 동시에 고금을 통하여 많은 예찬을 받아 왔다. 그 가운데서도 상주가 강의 中流에 해당되는 곳으로 상주의 옛이름 “上洛”的 동쪽이고, 上代에

17) 권태을, 「洛江泛月試會의 史的 考察」, 상주산업대 논문집 제32집, 1990, pp. 203-241.

- 18) 「조선총독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儒生數가 227,005명인데 그 중 영남지방이 44,857명(경북 33,458명, 경남 11, 399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 차지하였고, 有名한 학자를 배출한 부락이 전국에 186인데 여기서 영남이 93(경북 59, 경남 34)으로 약 반수인 50% 정도의 놀라운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유명한 정치가를 낸 부락이 547인데 영남이 170(경북 127, 경남 43)으로 이것 역시 30%를 웃돌고 있었다.」(조선총독부, 조선의 취락, pp. 311-331, 1928년 刊)
- 19) 「낙동강을 따라 이튿날 인재를 소개하면 順興에는 晗軒 安榕, 體泉에는 西河林春과 別洞 尹祥, 奉化에는 三峯 鄭道傳, 禮安에는 退溪 李滉, 安東에는 上洛公 金方慶과 그의 曾孫되는 恬若齊 金九容, 義城에는 王亂宰相 西厓 柳成龍, 尙州에는 愚伏 鄭經世, 善山에는 治隱 吉再와 佔畢齊 金宗直 그리고 死六臣 丹溪 河緯地, 仁同에는 旅軒 張顯光, 星州에는 白花 李兆年과 陶隱 李崇仁 그리고 東岡 金宇顥과 寒岡 鄭述, 金山에는 梅溪 曹偉와 寒暄堂 金宏弼, 高靈에는 抱翠軒 朴闡, 大邱에는 四佳 徐居正, 三嘉에는 南冥 曹植, 晉州에는 浩亭 河峯과 私淑齊 姜希孟 等 많은 人材를 배출하였다.」(商山志 pp. 14-17 참고).

는 이곳 沙梁伐國의 도읍이었던 洛陽의 동쪽에 흐르므로 그 이름이 洛東江이라 한다. 낙동강 이름이 상주에서 유래된 것과 같이 江의 유역 중에 상주를 통과하는 江勢와 沿岸의 경관이 가장 수려하고 浩大하여 절경이라 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벌 매호와 회상나루 사이에 위치하는 擧天臺가 상주 유역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절경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경천대 경관이 뛰어남에 따라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국민휴양지로 환영을 받고 있다. 이 경천대 아래 雪潭 蔡得沂(1604~1647)의 舞雪亭이 있다.

雪潭은 頤齋(1561~1625)보다 뒷사람으로서 상주 사별면 낙동강변에 위치한 회상리의 自天臺(擎天臺)에 舞雪亭을 짓고, 정자 주변 28景의 승지를 두고 시인문객들과 시문활동을 하였다.

雩潭의 舞雩亭은 頤齋의 은거지 梅湖보다 5里 떨어진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있는데, 이곳 自天臺와 梅湖의 마을 어귀에 있는 御風臺와 臨湖亭이 있는 洛江은 天然의 勝地로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따라서 頤齋도 매호에서 매호정사를 배경으로 〈梅湖別曲〉 가사를, 雨潭 역시 自天臺를 배경으로 하여 국문가사 〈天臺別曲〉을 창작하여 이 두 작품이 상주의 대표적인 누정시가 작품으로 전한다.

3) 梅湖精舍

頤齋의 梅湖精舍는 二適亭을 두고 말한다. 현재 梅湖에는 二適亭이 없고 다만 頤齋의 別廟만 있다. 二適亭은 선생의 別廟 앞 고추밭이 정자의 옛터로 믿고 있는데, 이 二適亭 옛터에 1991년에 “臨御齋”를 건립하였다. 臨御齋는 頤齋의 정자 臨湖亭과 臺인 御風臺의 머릿자를 따서 제실의 명칭을 붙였다.

〈梅湖別曲〉에 보면 매호정사의 창건 전후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商山 東畔과 洛水 西涯에 / 烟霞을 헤치고 洞天을 엊즈 드러 / 竹杖 芒鞋로
處處의 도라 보니 / 澄潭 입흔 곳의 노프니는 絶壁이오 / 옥 그릇 여흘은 입 편

듯 흘러 있다/臺도 듯그려니 亭子도 지으려니/池塘도 푸오며 潤水도 혜오려니/니 힘 빛는터로 草屋 三間 지어 놔니/制度 草創한터 景槩는 그지업다」

위의 가사내용에서 “草屋 三間”은 二適亭(梅湖精舍)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호에는 頤齋의 梅湖精舍를 비롯하여 洛江 절벽 위에 臨湖亭을 세우고, 退江里에서 梅湖로 들어 오는 마을 어귀, 강가에 御風臺가 있으며, 아울러 매호정사 앞에는 頤齋先生이 손수 池塘(梅湖池)을 만들기 위해 흙을 파고 만들었음을 볼 수 있다.

4) 臨湖亭과 御風臺

낙동강 기슭의 絶景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樓와 臺, 그리고 亭이 경치를 배경으로 하여 세워져 있어, 亭子 위에 서면 정자 아래의 浩大한 洛江의 江流와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사장이 浩然한 氣와 우주와 曠感을 일깨워 준다.

江岸에 위치한 梅湖에도 梅湖亭과 二適亭이 있었고, 梅湖의 左쪽에 御風臺가 있으며 오른편에는 臨湖亭이 있었는데, 모두가 江가 높은 곳에 있어서 眺望이 좋았다. 또 이 부근에는 伴鷗亭, 凤陽臺와 楓湖亭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臨齋는 〈梅湖別曲〉 가사에서도 臨湖亭과 御風臺에서 본 洛江 주위의 絶勝을 노래하고 있다.

「千頃 浩光은 實鏡을 듯가시며 /十里 漁村은 烟樹로 粧占한니 /臨湖 眼界와 御風 勝槻를 /말노 다 이룬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고」

江가의 큰 바위덩이를 가르키는 御風臺는 지금도 남아 있으나, 매악의 동남 날개쪽 강가의 절벽 위의 있었던 臨湖亭에는 옛터만 남아 있고, 지금은 관개용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어 重創이 시급하다. 이 두 亭과 臺 사

이에 옛날에는 梅湖池(池塘)가 있었으나 지금은 江모래에 묻혀 배추밭으로 변하였다.

梅湖에는 남쪽으로 雲城津이 있어 예전에는 江 건너 禮泉郡 豊壤의 시장과 직통하는 상거래가 열렸고, 부산의 소금배가 올라 왔다고 한다.

5) 梅岳山과 飛鳳山

〈梅湖別曲〉에 보면

「端妙한 飛鳳과 僂塞한 梅岳이 / 東西를 相對하여 有情이 셔 이시니 / 玉容
瑞士와 介胃 武夫 / 摄讓 周旋하여 氣勢를 다토는 듯」

하면서 梅湖 마을을 둘러 싸고 있는 梅岳山과 飛鳳山을 동서로 뻗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梅岳山은 바로 매호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을 가르킨다. 따라서 앞에 흐르는 洛江 못지 않게 기이절묘한 산이다. 山 형체가 모두 흰빛으로 보이는 암벽으로 된 山이다. 이 암벽의 군데군데에 老松이 푸르게 수놓은 듯 서 있고, 그 사이 사이로 드러낸 흰 암벽이 梅花 송이처럼 피어나서 “梅岳”이란 이름을 지었다 한다. 이 매악산이 洛江을 沿하여 무리를 지어 높고 맞게 우뚝 우뚝 서서 湖를 굽어 보니 湖는 이를 받아 그 청초함을 더하여 그 옛날 “梅花映湖”形이란 풍수설이 생겼을 정도로 勝地였기에 頤齋는 이곳에 隱遁地로 정한 듯하다.

頤齋先生 이후 삼백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목 매와 등결을 연상케 하는 梅岳이 있고, 그 앞에 백사장을 물감처럼 가르며 흐르는 洛江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환상의 세계에 복원되는 梅湖洞天은 솔바람에 물어오는 옛가락으로 충일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동서로 마주 보고 있는 飛鳳山은 상주·중동면 愚川의 主嶺이고, 日月山의 南脈이며, 이 일대 예천, 의성, 상주의 경계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鎮山이다. 이 山은 어느 郡, 어느 방면에서 보아도 산 꼭대기의 형상이 비슷한 것이 특색이고 산이름이 말해 주듯 龍鳳이 내래를 펴고 飛翔하는 기상과 상서로운 기풍, 그리고 臨流毓種한 정기를 지니고 있다. 主嶺답게 三山中에서 가장 높고, 넓게 자리잡고 있다. 산의 서쪽 줄기는 靑龍山이 되어 洛東江에 臨하고 있는데 絶頂에는 奇絕한 石窟이 있고, 또 중허리에는 靑龍寺가 있으며, 남쪽 줄기에는 物興山으로 渭水에 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山의 主脈이 愚川의 名區를 이루고 낙동강변까지 힘차게 펼쳐져 있어 江가의 絶景을 이루어 주고 있다.

6) 梅湖里 주위의 勝景

① 退江里

퇴강리는 속명으로 勿味(물미) 退河(퇴하)라 한다. 마을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물이 흔한 곳이라 하여, “물미”라고 불렀다. 또는 낙동강물이 마을 앞에서 멀리 흘러간다고 “퇴강”, “퇴하”라고 하였다.

退江은 三江이 모여 河豐津을 지나 내려온 洛東江의 本流 利安川과 串川이 鳳凰臺 앞에서 합류하여 金谷, 下葛을 지나 이곳에 이르러 飛鳳山 앞에서 本流와 합류하는 곳을 退江이라 한다. 兩水가 합류하는 곳에 洲와 浦와 그리고 津이 스스로 이루어졌다. 물결이 맞부딪히니 일단은 주춤하여 물러서는 듯하다. 그래서 江이 물러선다 하여 退江이라 한다. 安東의 작은 시내가 물러서는 退溪는 退溪先生으로 인하여 크게 유명하였다. 이곳은 시내가 아닌 江이다. 江이 물러서는 이 奇勝, 언제 누가 이를 천하의 名勝으로 명성을 떨치게 할 것인지 자못 기다려진다.

비봉산 앞의 洲는 정녕 奇絕하다. 江 가운데에 길게 드러나 있으므로 언뜻 보면 洲이나 사면 모두 江이니 틀림없는 섬(嶼)이고, 四面 모두에 배(舟)를 대니 船艤이고 이곳 저곳을 건너 다니게 하니 영락 없는 津이다. 이렇게 여러 形態이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 그런지 이름이 없다.

지금은 미류나무가 가에 둘러서고 가운데는 밭이 일구어져서 원두막이 세워지고 오이와 수박, 딸기, 蔬菜 등이 비닐에 덮여 계절없이 생산되고商品으로 거래되어 또 하나의 珍風景을 이루고 있다. 江中の 섬을 돌아 쏟아지는 거센 물결은 本流에 밀려 退江의 마을 앞으로 쏟아지듯 흘러 내리니, 굽이치는 곳에 沼와 潭이 생기고 沿岸은 奇岩이 江뚝을 이루고 岩上에 松竹이 自生하여 奇觀을 이루었다. 물은 깊게 고였다가 쏟아지듯 흐르고 바위에 부딪혀서는 파도를 일으키며 돌아든다. 푸르다 못해 검고 맑다 못해 빛난다. 거기마다 沿岸에 푸른 산이 강물에 비춰져 푸르름을 더하고 白沙場과 白石이 맑은 물을 더욱 빛나게 한다. 바위에는 한 점의 이끼마저 없어 훨대로 희고 沙場에는 한 포기의 갈대마저 없어 깨끗하다. 三江과 合치는 大江, 飛鳳山과 마루산이 對峙하는 名山이 함께 한 이 退江, 언제인가 退溪와 다름없이 천하에 명성을 떨칠 때가 올 것이다.²⁰⁾ 퇴강은 매호 바로 위에 위치한 洛江의 상류지역이다. 따라서 퇴강서부터 매호 아래 위치한 경천대와 도남까지는 洛東江 전체를 대변할 勝景이 한 곳에 모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② 擎天臺(自天臺)

洛東江 600餘 里의 長流中 江의 이름이 되었으리 만큼 尚州 洛東 區間이 중심이며, 이 區間의 流域中에서는 이 擎天臺가 더욱 기절하다.

이 擎天臺는 文獻에 의하면 朝鮮 仁祖때 일어난 丙子胡亂(1636年)에 이른바, “城下의 盟”으로 講和가 이루어지고 世子와 두 大君이 清國의 潘陽에 불모로 잡혀 가게 되자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시 名望이 높고 智略이 뛰어난 雪潭 蔡得沂(1605~1646)가 仁祖의 召命을 받고 潘陽에 가서 8년동안 異域風霜의 고통을 함께 하며, 凤林大君과 北伐의 大計를 論議하기 이전 草野에 閒居할 때 青華山의 仙遊洞, 無知山의 別坐臺

20) 「尚州誌」, pp. 1428–1429.

등을 探勝하고 1628年(仁祖 6) 드디어 이곳의 名勝을 찾아 터를 잡고 亭子를 세운 후 峯巒과 江潭, 그리고 絶壁과 奇岩에 이름을 붙이고 詩文을 지어 讚美하였다. 이때에 雲潭은 경천대에서 仁祖의 召命을 받고 심양으로 떠나기 직전 1638년(인조 16년)에 이곳에서 국문가사 〈天臺別曲〉이라 는 山水敍景歌辭를 창작하였다. 〈天臺別曲〉의 배경이 된 (擊天臺)는 梅湖에서 回上津 사이의 一曲을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 中에서 이 擊天臺가 가장 대표적이고 景觀이 奇絕하기 때문이다. 이 臺는 天柱峯에서 내린 支脈이 江에 다달아 멈춰 서면서 層壁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또 3층으로 臺를 이루었으며, 臺上의 큰 바위가 서로 맞닿은 사이에 가로로 擊天臺라 새기고 그 아래에 세로로 ‘大明天地 崇禎日月’이라 두 줄로 새겨져 있다. 層과 層 사이에는 老松이나 古槐 大橡이 긴 가지를 드리워 그늘을 지으며 서 있고, 바위는 모두가 마치 알(卵)과 같이 둥글어 擊天의 不可思議한 뜻을 간직하고 태초의 創造와 조화의 神秘를 실감하게 한다. 산쪽은 洞壑을 지어 臺를 더욱 높여서 확실하게 하고 江쪽은 千仞의 絶壁으로 臺의 偉容을 돋우었다. 雲潭은 이 경천대에 舞雲亭 정자를 손수 지어서 이곳에서 살았다.

경천대 무우정을 둘러싼 산수자연은 하늘이 만든 아름다운 佳景과 奇絕이 펼쳐진 天然의 승경을 얻었으니, 三峯이 뒤에 높이 솟고 大江이 앞을 지나며 절벽이 병풍같이 둘러싸여 기이한 바위들이 줄지어 둘러쳐진 가운데 江물이 검은 곳이 있는데 이를 雲潭(龍沼)이라 하고, 또한 자신의 號로 부르게 되었다. “雲潭”이라는 낙동강의 沼는 옛날부터 상대인들이 여름 가뭄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면 갑자기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피워 비가 내리게 하는 영힘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우담 옆에 자연적으로 높이 솟아 오른 큰 바위가 自天臺인데 그 모양이 技巧하고 絶異함은 人工으로는 감히 이를 수 없는 아름다운 臺다.

우담 체득기는 이 아름다운 臺에 손수 정자를 세우고 이름을 “舞雩亭”이라고 亭號를 붙였던 것이다.

우담은 정자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여 봄·가을을 번갈아 아름답게 꾸미고, 맑은 강물이 아래와 위를 서로 비추는 絶景 속에 살면서 「雩潭十詠」과 「天臺別曲」(一名 鳳山曲) 등의 누정시가를 창작하였다 경천대에 있는 雨潭의 정자 “舞雩亭”은 상주 사벌면 회상리의 擊天臺(自天臺)과 鼓瑟壇의 중간에 古色이 칭연한 산을 등지고 洛江을 굽어 보면 평지에 자리잡은 정자의 이름이다. 둥근 기둥에 쪽마루의 전형적인 조선조시대 누정의 구조로서 팔작지붕은 골기와로 이어졌으며, 현액에는 선현들의 깊은 뜻과 節義가 기록되어 있다. 堂軒에 걸려진 현액에는 清陰金尚憲의 「雩潭 新亭記」, 泽堂 李 植의 「舞雩亭記」를 비롯하여 題詠이 전하고 있었다.

무우정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있는 3층 바위로 된 경천대와 경천대 남쪽 고슬단은 경천 28景에 속하는 절경으로서, 효종이 화공을 시켜 山水병풍을 만들었을 정도로 경천대의 勝地다. 경천대 28景은 雨潭의 정자 舞雩亭을 비롯하여 天柱峯 擊天臺, 詠歸亭 鼓瑟壇, 燭柯石, 回瀾臺, 翡鳳山, 竹菴, 玉柱峯, 臥龍崗, 雨潭, 千靄臺, 朝陽臺, 龜巖, 觀魚臺, 薇邱, 栗園, 玉灘, 幽靜門, 香爐峯, 悟桐霽月 捧日亭, 鏡湖, 梅亭, 虎巖, 鶴沙, 問津渡 등을 말한다.²¹⁾ 경내의 主峯으로峯 전체가 老松과 奇岩이 천연의 樓臺를 형성하고 있는 天柱峯이 있고, 여기서 내리 뻗은 地脈이 洛江에 이르러 멈춰 서면서 절벽을 이루고 삼층으로 臺를 이루었으니 이곳을 경천대라고 부른다.

③ 道 南

도남은 退江이 梅湖를 지나 쌈살같이 내닫던 물줄기가 對岸인 回上里

21) 「雩潭先生 文集」(擊天臺 山水自錄條)

의 沿岸 絶壁에 부딪혀 물길을 돌려 擊天臺 앞으로 밀어 닦쳐 回瀾臺에서 깊숙히 굽이치면서 臥龍崗을 감싸 안고 크게 圓을 그려 道南의 形勝을 이룬 곳이다. 이를 擊天臺와 屏城川의 河口를 연결하여 보면 道南은 宛然 한 半島가 된 것이다. 安東의 河口를 山太極 水太極이라 한다지만 이 道南도 자세히 보면 弓乙의 形局으로 造化를 실감하게 한다. 江勢가 이렇듯 激流로 兩岸을 사정없이 부딪고 자주 물길을 돌리니 江은 자주 屈曲을 일으키고 물결은 怒號하며 구비 도는 곳에 물을 모아 힘을 길러서는 對岸을 뒤엎을 氣勢로 내달아서 힘대로 絶壁에 부딪히고는 그대로 주저 앉아 깊은 龍沼를 이루고 또 다시 흐르고 모이고 부딪히기를 자꾸만 되풀이 한다. 그래서 낙동강은 곧지 않고 굽어 돌며, 깊고 얕음과 넓고 좁음이 같지 않고 緩急과 巨細가 存在한다.

玉柱峯과 臥龍崗이 솟아 오르고 뻗어 내려 江물을 멀리 밀어내고는 屏城川의 넓은 공간에 沃土로 田野를 이루고 산줄기마다 골을 지어 果園과 마을을 조성하였다. 그 가운데에 江을 沿하여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이 감싼 곳에 道南書院이 자리잡고 있다. 元來 “吾道在南”이라 하여 院名이 되고 院名에 따라 洞名이 되었다 한다. 이 道南의 산과 들이 비옥하고 땅이 넓은 데 反하여 對岸은 山勢가 급하고 岩壁으로 이루어졌다. 산기슭에서부터 層壁과 岩盤으로 높이 쌓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岩色은 梅湖地域과는 대조적으로 모두 검은 빛이다. 이끼낀 바위가 많은가 하면 老松도 드문 드문 서 있어 太古의 風致를 느낀다. 그 層壁 안에 靑龍寺가 있다. 古刹이라 전하고 寺址가 名基라 하여 高僧大德의 내왕이 빈번하다. 이리하여 江을 사이에 두고 對岸의 산 중턱에는 절이 있어 讀經하는 목탁 소리와 朝夕으로 은은한 鐘소리와 풍경소리가 설헌 없이 山川을 울리고 洞口의 書院에는 名賢의 높은 德이 숨쉬고 이를 追慕하는 香火가 끊이지 않으며 養土하는 絃誦의 소리 一貫하여 전하니 이 어찌 名勝中의 名勝이

아닌가? 수많은 詩가 傳하여 當時의 風光과 行事を 지금도 알게 한다.²²⁾ 道南은 江의 區間과 流域의 景觀이 이렇듯 秀麗하고 先賢을 모신 書院이 자리잡고 있어 士人們의 訪問과 船遊하는 風流客이 많이 있었고 당시의 興感을 詩로 써서 남기기도 하였다.

이렇듯 道南은 그 景觀만이 絶勝이 아니라 儒學의 源源地이며 世人의 觀光地이다. 그리고 도남에는 낙동강을 오고가는 두 개의 나루가 있다. 그 하나는 回上에는 檜洞津(회골나무)가 있어 道南과 왕래한다. 이 나루는 擧天臺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다른 나루보다 조금 특이하다. 道南쪽은 沙場이 넓고 回上쪽은 물이 깊고 奇岩이 天作으로 船艤이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飛鷺津(大飛나루)이 있어 梧上里의 大飛 마을과 왕래한다. 道南은 이 두 나루에서 江으로 바다와 통하고 陸路를 中東과 多仁, 豊壤으로 연결되며, 尙州와도 직통되는 등 海陸間 交通이 便利하니 일찍부터 交易하는 市場이 書院 앞 갯벌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었다. 俗稱 鹽場이라 하여 陸海產物이 이곳에서 거래되었다고 전한다.

이상과 같이 顧齋는 尚州 梅湖의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은둔생활을 한 것은 晚年の 일로서 그는 63세에 梅湖에 들어와 65歳에 卒하였으니 2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다. 그의 〈梅湖別曲〉作品에는 梅湖의 자연적 배경이 곧 作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顧齋는 梅湖의 자연을 愛好하되 아름다운 자연을 스쳐가며 觀望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江村生活에 젖어 있는 隱居者로서 계절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고 느낀 것을 自己所有化하고, 그것을 다시 詩作品化함으로 영원히 오늘에再生시키고 있다.

²²⁾ 「尚州誌」, pp. 1419–1420.

4. 結 論

지금까지 〈梅湖別曲〉의 自然背景을 살펴 보았다. 그의 作品內容을 보면 그 어느 한 귀절이라도 架空의 事物이 형상화되었거나 관념적으로만 作品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確然해진다. 즉 그의 작품에는 조선조 선비정신에 투철한 儒教思想을 基盤으로 하여 外的으로는 과란 많고, 多端했던 당시의 政治的 社會狀況과 內的으로는 經濟的 貧困으로 인하여 晚年에 이르기까지 苦難의 연속이었다. 그가 처했던 이러한 환경은 또한 作品의 基調가 되어 作品 전반에 溶解되어 있고, 특히 〈梅湖別曲〉에서는 安貧樂道를 주제로 한 것이 특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頤齋가 山水自然에 隱遁하게 된 것도 당시 時運이 不利하여 自身의 큰 뜻을 제대로 한 번 펴지 못하고 落鄉하여 다만 遠期를 梅湖 自然에 묻어버렸고, 大器를 草野의 玉石으로 남긴 것이 두고 두고 후세까지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頤齋는 조선조 중기의 儒學者요, 詩, 書, 畫에 三絕로 불리우는 예술인으로 士林의 稔式이 되었고, 당시 輔國의 棟樑材가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頤齋는 平生 忠君憂國之誠의 선비정신과 物我一體의 자연관은 不朽의 詩文을 남겨 두어 영원한 生命을 얻게 되었다.